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세대간 비교: 여대생 딸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 영 해 · 류 세 양 · 김 정 숙

이 정 순 · 최 혜 금

최 훈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동신대학교 스텔어디스학과

(요약) 본 연구는 세대간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정도 및 차이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여자 대학생 91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상대로 시도된 것이었다.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은 어머니 집단이 딸 집단보다 더 높은 편이었지만, 노인에 대한 태도는 어머니 집단보다 딸 집단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 어머니 집단은 노인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으며, 어머니와 딸의 태도점수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을 위한 사회적 교육, 특히 어머니 교육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 경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들의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고령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들을 상대로 한 노인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태도 함양의 필요성 등의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Key words: 노인, 지식, 태도]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20-714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252번지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간호학과 정영해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자의 e-mail 주소는 yhchung@dsu.ac.kr입니다.

서 론

우리나라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1%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의 문턱을 넘어섰으며 (통계청, 2005) 향후 평균수명의 연장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2010년 79.1세, 2030년 81.9세, 2050년 83.3세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 2005).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연장은 노년기의 연장을 의미함과 동시에 고령화 문제라는 사회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령화 문제로는 노인인구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부양부담의 문제, 세대간 갈등과 오해의 문제, 그리고 노인 소외, 노인 학대, 노인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를 들 수 있다. 고령화 문제는 현재 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령화 문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젊은 세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명 연장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 간 세대 공존의 기간은 늘어나고 있지만 (한정란 · 이금룡 · 원영희, 2006), 핵가족화가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는 한국 사회는 갈등, 반목, 몰이해로 세대 간의 단절이 우려되고 있다 (이금룡, 2004).

각 세대가 서로에 대하여 갖고 있는 지식 및 태도는 세대 간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대생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까지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그 변화의 흐름을 함께 해 나가야 할 세대라는 점에서 그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향후 사회에서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 해결과 세대간 갈등의 해소를 예견할 수 있는 척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정란, 2000). 또한 현재 노인부양의 주체인 중년여성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는 현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하는데 주요 정보가 된다.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각 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세대를 달리한 비교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또한 어머니와 딸 세대가 서로 다르다는 연구결과들은 독립적인 표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 예를 들어 노인과의 동거여부나 어머니 세대의 영향 등을 배제할 수 없었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머니와 딸을 짝지어 비교하는 연구 설계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간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정도, 차이, 및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인데, 이는 세대통합형 노인 교육 전략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여대생과 어머니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정도 및 차이를 알아보고,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리고 노인과의 경험별 지식과 태도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연구 방법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전라남도 소재 D대학교의 여학생 91명(1학년 44명, 2학년 47명) 및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여학생들의 경우 전공은 간호학이 33명(36.3%), 유아교육학이 25명(27.5%), 스텝디어스학이 15명(16.5%), 언어치료학이 10명(11.0%),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전공이었다. 여학생들의 평균나이는 19.2세이었고, 맏이로 태어난 여학생들의 비율은 약 68.5%($n=61$)이었다. 여학생들 중에서 노인과 관련된 활동을 경험해본 비율은 약 38.5%($n=35$)이었으며, 또 노인과 관련된 활동이나 동거를 경험해본 비율은 약 54.9%($n=50$)이었으며 그리고 그 중 90.0%($n=45$)는 그러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어머니의 경우 평균나이는 46.2세이었고, 맏이로 태어난 비율은 약 42.9%($n=39$)이었다. 그들의 교육수준은 중졸이 11명(12.1%)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고졸 또는 그 이상이었다. 어머니들 중에서 노인과 관련된 활동을 경험해본 비율은 약 64.8%($n=59$)이었으며, 또 노인과 관련된 활동이나 동거를 경험해본 비율은 약 68.1%($n=62$)이었으며 그리고 그 중 약 90.3%($n=56$)는 그러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사대상자 가족 환경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 59.3%($n=54$)이며, 나머지는 주택에 거주했으며, 또 아버지의 출생순위가 맏이인 비율은 약 35.6%($n=32$)이었다. 가족의 월평균수입에 대한 비율은 100만원 미

만이 약 5.6%($n=5$), 100-200만원 정도가 약 20.2%($n=18$), 200-300만원 정도가 약 25.8%($n=23$), 300-400만원 정도가 약 25.8%($n=23$), 그리고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22.5%($n=20$)이었다.

자료 수집은 2006년 초여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조사에 동의한 여학생의 설문을 받았으며, 그 후 응답한 학생 편에 어머니용 설문지를 보내 응답을 받았다. 어머니용 설문지는 딸이나 다른 가족과 논의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응답내용이 충실한 91쌍(182명)의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교육수준, 전공, 노인과 관련된 활동이나 동거 경험 내역, 주거형태, 경제수준, 가족의 출생순위 등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묻는 문항들을 비롯하여 그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 등이었다. 그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은 Palmore가 개발한 후 다시 수정했던 FAQ I(Facts on Aging Quiz Part I)의 True-False version로 측정하였다 (Palmore, 1977, 1988). FAQ I는 노화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일반적인 편견을 담고 있는 25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문항에 대한 반응형태는 ‘그렇다’에 1점 그리고 ‘그렇지 않다’ 또는 ‘잘 모르겠다’에 0점을 주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보인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67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측정한 노인에 대한 태도는 Sanders 등이 개발한 의미 분별척도(Aging Semantic Differential Scale)이었다 (Sanders, Montgomery, Pittman, & Balkwell, 1984), 이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대립되는 형용사 쌍으로 이루어진 각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Likert식 7점 척도[매우 긍정적이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다(1)에서 매우 부정적이다(7)까지]로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는 3.5에서 4.5까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노인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89이었다.

결 과

딸과 어머니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딸이 25점 만점에 평균 10.4($SD=3.6$, $Range=0-16$)로 정답률이 약 41.6%에 불과했던 반면, 어머니가 11.8($SD=3.4$, $Range=0-17$)점으로 약간 더 높았다. 한편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딸이 75.2($SD=15.6$, $Range=20-103$)인 반면, 어머니가 82.2($SD=16.1$, $Range=20-139$)점으로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지식과 태도 점수 paired t -test에서 모두 유의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가 딸보다 지식도 더 높고 그리고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지식의 경우 $t=4.22$, $p<.001$, 태도의 경우 $t=3.23$, $p<.01$). 또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오직 어머니의 반응에서만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딸의 경우 $r=.15$, $n.s.$, 어머니의 경우 $r=.28$, $p<.01$).

노인에 대한 태도를 구성요소별로 살펴볼 때 (<표 1>을 참조), 어머니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항목은 노인이 ‘어리석다’, ‘지루하다’, ‘비생산적이다’, ‘아프다’, ‘융통성이 없다’, ‘의존적이다’, ‘보수적이다’, ‘매력적이지 못하다’, ‘불평이 많다’의 9개 항목인 반면, 딸은 ‘어리석다’, ‘아프다’, ‘보수적이다’의 3개 항목에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두 집단의 비교에서 딸이 어머니보다 더 부정적인 문항은 노인은 ‘어리석다’ 뿐이었는데, $p<.001$ 수준에서 의의가 있었다. 아울러 어머니가 노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 항목은 ‘친절하다’, ‘박식하다’, ‘신뢰할 수 있다’, ‘호의적이다’, ‘좋다’, ‘인내심이 있다’의 6개 항목인 반면, 딸은 ‘친절하다’, ‘박식하다’, ‘신뢰할 수 있다’, ‘관대하다’, ‘호의적이다’, ‘좋다’, ‘인내심이 있다’, ‘낙천적이다’의 8개 항목에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두 집단의 비교에서 딸이 어머니보다 적어도 $p<.05$ 수준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문항은 ‘신뢰할 수 있다’, ‘관대하다’, ‘깔끔하다’, ‘재미있다’, ‘생산적이다’, ‘건강하다’, ‘융통성 있다’, ‘독립적이다’, ‘인내심이 있다’, ‘낙천적이다’ 등이었다.

<표 1> 딸과 어머니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 ($n=91$)

문항	딸	어머니	t	p
	$M \pm SD$	$M \pm SD$		
현명하다 - 어리석다	5.10 $\pm$ 1.07	4.67 $\pm$ 1.47	2.812	.006
친절하다 - 불친절하다	3.19 $\pm$ 1.46	3.26 $\pm$ 1.61	-.374	.709
박식하다 - 무식하다	3.40 $\pm$ 1.26	3.43 $\pm$ 1.32	-.406	.685
행복하다 - 슬프다	4.16 $\pm$ 1.26	4.33 $\pm$ 1.49	-1.000	.320
신뢰할 수 있다 - 신뢰할 수 없다	2.73 $\pm$ 1.32	3.21 $\pm$ 1.47	-2.602	.011
관대하다 - 이기적이다	3.14 $\pm$ 1.43	3.52 $\pm$ 1.59	-2.108	.038
활동적이다 - 비활동적이다	4.08 $\pm$ 1.49	4.48 $\pm$ 1.68	-1.752	.083
깔끔하다 - 단정치 못하다	3.85 $\pm$ 1.41	4.40 $\pm$ 1.56	-3.034	.003
호의적이다 - 비호의적이다	3.27 $\pm$ 1.21	3.42 $\pm$ 1.57	-.785	.434
재미있다 - 지루하다	4.03 $\pm$ 1.43	4.51 $\pm$ 1.43	-2.518	.014
생산적이다 - 비생산적이다	4.29 $\pm$ 1.38	4.83 $\pm$ 1.38	-3.496	.001
건강하다 - 아프다	4.67 $\pm$ 1.49	5.27 $\pm$ 1.39	-3.562	.001
좋다 - 나쁘다	2.87 $\pm$ 1.12	3.02 $\pm$ 1.17	-.890	.376
융통성이 있다 - 융통성이 없다	4.01 $\pm$ 1.38	4.55 $\pm$ 1.48	-3.066	.003
독립적이다 - 의존적이다	4.27 $\pm$ 1.51	4.82 $\pm$ 1.61	-2.641	.010
진보적이다 - 보수적이다	5.14 $\pm$ 1.35	5.15 $\pm$ 1.44	-.053	.958
매력적이다 - 매력적이지 못하다	4.38 $\pm$ 1.16	4.60 $\pm$ 1.51	-.939	.350
인내심이 있다 - 인내심이 없다	2.92 $\pm$ 1.35	3.32 $\pm$ 1.78	-1.984	.050
낙천적이다 - 비관적이다	3.39 $\pm$ 1.32	3.86 $\pm$ 1.52	-2.590	.011
불평이 없다 - 불평이 많다	4.44 $\pm$ 1.31	4.58 $\pm$ 1.48	-.782	.436

주. 태도 점수는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두 집단의 비교는 paired t -test 결과임.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인과의 경험에 따른 지식과 태도의 비교

딸과 어머니가 반응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점수에서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모녀의 반응간의 상관계수가 지식에서는 .37 그리고 태도에서는 .50이었는데, 모두 $p < .01$ 수준에서 의미가 있었다. 한편 현재 노인과의 동거 여부, 과거 노인과 관련된 활동 경험, 및 과거 노인과 동거하거나 노인 관련 활동에 따른 느낌의 3가지 항목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점수를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의 딸의 반응을 항목의 세목별로 비교했을 때 지식이나 태도 모두 전혀 의미 있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세 번째 항목의 태도에서 부정적 느낌과 긍정적 느낌의 차이도 의의가 없었는데, 양방향 검증에서 p 값은 .06 정도였다. 역시 <표 3>의 어머니의 반응을 항목의 세목별로 비교했을 때 지식에서는 동거여부의 차이가 $p < .05$ 수준에서 드러났다. 또 태도에서는 세 번째 항목의 차이가 $p < .01$ 수준에서 드러났는데, Tukey의 HSD 검증 결과 이는 오직 긍정적 느낌과 부정적 느낌의 차이만 보였다.

<표 2> 딸의 경험 및 이전 느낌 별 비교 (n=91)

		n	지식	태도
			M ± SD	M ± SD
동거여부	예	7	11.9 ± 3.0	70.3 ± 17.2
	아니오	84	10.3 ± 3.6	75.6 ± 15.5
노인관련	있음	35	11.0 ± 2.8	84.5 ± 14.1
활동경험	없음	56	10.1 ± 3.9	57.6 ± 16.6
노인관련 활동 시 느낌	긍정적	45	10.6 ± 3.5	71.3 ± 14.9
	부정적	5	10.8 ± 4.1	82.6 ± 7.5
	경험없음	41	10.2 ± 3.6	78.5 ± 16.2

<표 3> 어머니의 경험 및 이전 느낌 별 비교 ($n=91$)

		<i>n</i>	지식	태도
			<i>M</i> ± <i>SD</i>	<i>M</i> ± <i>SD</i>
동거여부	예	7	9.0 ± 3.8	81.9 ± 6.2
	아니오	84	12.0 ± 3.3	82.2 ± 16.7
노인관련	있음	59	12.1 ± 3.4	83.2 ± 16.3
활동경험	없음	32	11.5 ± 3.5	80.3 ± 15.8
노인관련	긍정적	56	11.5 ± 3.7	79.1 ± 16.9
	부정적	6	14.0 ± 2.6	100.0 ± 21.9
활동 시 느낌	경험없음	29	11.9 ± 3.1	84.4 ± 9.8

논 의

본 연구는 어머니와 대학생 딸이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조사한 것으로 외적인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모녀를 상관표본(correlated sample)으로 조사하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을 측정된 결과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정답률은 절반 이하로 전체적으로 낮았으나, 어머니 세대가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가 약간 더 높았다. 이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지식을 비교한 김중호와 강영결(2003)과 매우 유사한 결과이었는데, 중년세대인 어머니의 점수가 높은 것은 연령증가에 따라 노화에 대한 지식을 대중매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생 딸들의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도 대학생이나 간호사를 상대로 했던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도 큰 차이가 없는 편이었다 (김수영 · 양경미 · 오현이 · 김진선, 2002; 이재모 · 이신영, 2005; 송은주, 2004).

노인에 대한 태도는 어머니와 딸 세대 모두 중립적 범위 내에 있어 긍정적이지 않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 세대가 딸 세대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선자, 1989; 이금룡, 2004).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볼 때 어머니와 딸 세대는 노인의 지식적 영역인 ‘현명하다-어리석다’, 활동적 영역인 ‘진보적이다-보수적이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성향 영역인 ‘건강하다-아프다’ 항목에서 모두 부정적 태도를 강하게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가 유교적 이념과 서구사회의 이념이 혼재되면서 과거 노인에 대한 존경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가 약화되어감과 동시에 효의식과 같은 기존의 내면적 가치가 남아 있어 중립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가장 부정적인 항목으로 제시된 보수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 점은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반면, 가장 긍정적인 항목으로 제시된 ‘현명하다-어리석다’에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 점(김수영 등, 2002; 이재모·이신영, 2005; 한정란, 2000)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인을 현명한 어른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대목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 후 시부모님을 모셔야하는 부담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집단에서는 현재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가 더 높았고, 노인과 관련된 활동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경험했던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다. 대학생인 딸 집단에서는 노인과 동거여부나 이전의 노인과 관련된 활동 경험 여부나 활동 시 느낀 경험 등이 노인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의 차이를 좌우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노인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를 습득하는 경로와 인지과정을 연구한 이금룡(2004)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정보와 태도는 또래 친구들과 대화나 교육보다도 TV 등 대중매체의 광고를 통해 더 많이 습득·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딸 세대가 노인에 대해 일치하게 긍정적 태도를 보인 항목은 노인의 성향 영역인 ‘친절하다’, ‘신뢰할 수 있다’, ‘관대하다’, ‘호의적이다’, ‘좋다’ 그리고 기질 영역인 ‘인내심이 있다’ 항목이었는데, 그 결과는 노인의 지식과 활동 영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그리고 성향이나 기질적 영역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여준 이금룡(2004)과 일치하고 있다. 또 김미혜(2002)는 노인과의 동거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노인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이는 가족관계에서 어머니 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딸 세대와 노인 세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결과, 즉 노인에 대한 건강복지

여건이 미비한 현실에서 대학생 딸들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일방적으로 지각한 결과도 노인에 대한 어머니 세대의 태도가 딸 세대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사회복지학이나 간호학 전공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김수영 등(2002)에서처럼 본 연구의 대학생들에서도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이는 간호사 및 간호학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노인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밝힌 연구(송은주, 2004; 임영신 · 김진선 · 김기순, 2002)와는 상반된 결과에 해당된다. 한편 본 연구의 어머니 세대는 노인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세대인 어머니들이 가족관계에서 노부모 부양 등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과 관련이 높을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관련성은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토대로 연구해왔으나, 동일한 변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연구자나 연구대상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다 (김종호 · 강영걸, 2003). 따라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 즉, 연령이나 학력, 주성장 지역, 동거형태, 주부의 직업 유무 등의 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반복해서 점검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에 대한 이해 확대를 위한 사회적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어머니 세대가 여대생 딸 세대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어머니 세대에 대한 교육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을 젊은 세대들을 상대로 한 노인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태도의 함양 및 노인에 대한 긍정적 경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미혜 (2002).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논집*, 8, 69-89.
- 김수영 · 양경미 · 오현이 · 김진선 (2002).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 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한국노년학*, 22 (3), 21-36.
- 김종호 · 강영걸 (200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대학생과 30-4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24, 37-54.
- 보건복지부 (2005).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 송은주 (2004).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간호과학*, 16 (2), 12-19.
- 이금룡 (2004).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안모색. *한국노인복지연구*, 26, 143-164.
- 이선자 (1989). 각 연령군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노년학*, 9, 79-91.
- 이재모 · 이신영 (2005). 노인복지교육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9, 259-283.
- 임영신 · 김진선 · 김기순 (2002).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노년학*, 22 (1), 31-46.
- 통계청 (2005).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http://www.nso.go.kr>.
-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20 (3), 115-127.
- 한정란 · 이금룡 · 원영희 (2006). 청소년과 노년세대간 태도 분석: 상호지향성 및 중요도-실행도 분석모형을 기초로. *한국노년학*, 26, 381-402.
- Palmore, E. (1977). Facts on aging: A short quiz. *The Gerontologist*, 17, 315-320.
- Palmore, E. (1998). *The facts on aging quiz* (2nd Ed.) New York: Springer.
- Sanders, G., Montgomery, J., Pittman, J., & Balkwell, C. (1984).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 59-70.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for the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ir Mothers**

Younghae Chung · Se Ang Ryu · Jeongsook Kim

Jeong Soon Lee · Hye Keum Choi

Hoon Choi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520-714

Department of In-Flight Service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520-714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difference and correlation of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for the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ir mothers and to present basic data for intergenerational aging intervention strategy. Research participants were 91 students and their mothers, and the research instruments were Palmore(1988)'s FAQ I and Sanders et al.(1984)'s semantic differential scale.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knowledge on aging for the middle aged women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ir daughters, but attitudes toward elderly people for th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more positive than their mother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knowledge and the attitudes only from the middle aged women.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developing social education program on the elderly for the middle aged women and young generations.

(논문접수일: 2006년 10월 2일)

(수정논문접수일: 2006년 11월 7일)

(논문게재승인일: 2006년 11월 29일)